

국내 임금과 노동시간의 추이를 통한 노동시장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장유미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Labor Market Policy according Wage and Labor time in the Korea

Yu-Mi J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angshin University

요약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고전 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Robert E. Prasch의 재수정된 후방 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파악하였다.

Abstract It will prove that with a more plausible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the value of leisure, we can develop a more accurate model of the labor market without necessarily losing the primary merit of the received model. Moreover, with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labor market dynamic we can see that progressive era labor market legislation, design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bargaining power inequality in low wage labor markets, was in fact based upon sensible economic found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 These low-wage dynamics present an example of a positive feedback system or "vicious circle" at work in the economy. With the revised labor supply schedule presented above, the market dynamic of the low wage sector push the wage away from the range that is consistent with a self-regulating market.

Key Words : Revised(backward-bending) labor supply schedule, Revised labor market, Minimum wage, Maximum labor time, Subsistence wage

1. 서론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다. 몇몇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서

노동공급곡선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과 여가의 교환의 총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10, 26].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하여거나 소득을 위해 노동을 결정한다. 특히 낮은 소득의 사람들은 여가나 노력의 성과에 덜 의존하

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매일의 욕구에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다. 하지만 고전학파의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주류를 설명할 수 없으며, 제 3세계 노동시장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견해도 불구하고 고전학파 노동공급곡선에서 유추된 결론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실제 경험에서의 제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년 동안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노동공급곡선은 수직이거나 우하향한다는 생각도 지지를 받고 있다[8-12]. 둘째, 노동공급곡선이 높은 임금수준에서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이 된다는 것이다. 미시경제 이론에 의하면 높은 임금수준, 결과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서 전형적인 노동자는 더 많은 “정상재(normal goods)”를 구매하려고 한다. 여가도 다른 정상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properties)을 가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 때 적은 노동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여가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가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대체하는 경향은 이러한 높은 임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효과에 의해 상쇄된다.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낮은 임금수준에서의 노동공급량은 임금이 하락하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 변화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Prash가 주장한 수정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의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의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분석하여 추정해보는 처음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문헌들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개인으로 하였고 노동시간은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 초과시간을, 임금은 월 평균 임금액수와 월 평균 초과 근로수당으로 하여 고용형태별, 임금수준별, 차수별(연도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소득과 여가의 한계효용

경제학자들은 보통 소득과 여가의 한계효용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소득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추가 여가시간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추가 여가 시간에 낮은 한계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추가 여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첫째, “여가”는 자유시간과 구매력의 “공동상품”이다. 그래서 여가시간의 “품질”은 어떤 사람에게도 혹은 심지어 두 사람사이에서도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19]. 둘째, 경제학에서 “여가”는 임금을 대가로 노동을 하며 보내지 않은 시간에 대한 총괄적인 용어(omnibus term)이다. 좀 더 정확하게 “개인적인 일(personal work)”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의무(duties)나 자질구레한 일(chores)에 보내는 시간도 포함한다[14, 18]. 대조적으로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요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해주는 회사가 등장하고 있다[13]. 부자들이 돈으로 개인적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 부자들은 비 노동 시간에서 더 많은 효용을 끌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거나 저소득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가 자유시간은 종종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곤 한다. 퇴직자들이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론의 부분적인 증거이다[1-2].

이러한 제안이 수용되고 선형함수가 편익에 따라 모습을 취한다면 소득과 여가의 한계효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직선은 소득이 영(zero)일 때 양의 값에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Fig. 1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추가 여가시간의 한계효용이 낮은 수준의 소득에서 영 이하로 떨어진다[19]. 개인이 경험한 여가의 한계효용은 그들의 소득에 따라 증가한다. 특히 아주 낮은 소득수준에서 여가의 한계효용은 실제로 음의 값을 보인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임금을 위해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선택의 질과 양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하고 개인적인 일로 부담을 적게 진다는 사실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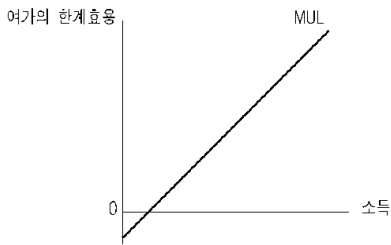


Fig. 1. marginal utility of free time and income

2.2 수정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공급곡선의 상부는 일반적인 이론과 일치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 중간이나 중상위 계층의 행동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Fig. 2에서처럼 실질임금(W)이 생활유지임금(W_s)이하로 하락하면 노동공급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고, 심지어 실질 임금이 계속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게 된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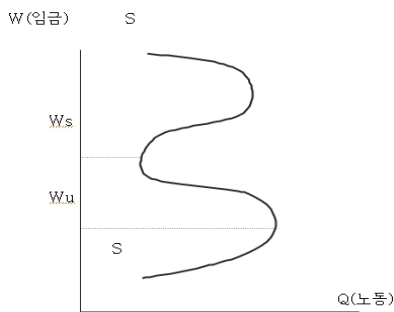


Fig. 2. modified labor supply curve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총 노동시간이 지속될 수 없을 때까지 발생할 것으로 본다. W_u 까지 실질임금이 아주 많이 하락하면 노동시간은 주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시민사회나 노동력에서 사실상의 사회구성원과 일치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다시 감소할 것이다[17].

2.3 노동시장의 다중 균형

노동시장은 다중 균형의 특징도 가지는데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함수에 대한 설명을 계속 사용하여 노동수요곡선을 Fig. 3에서처럼 우하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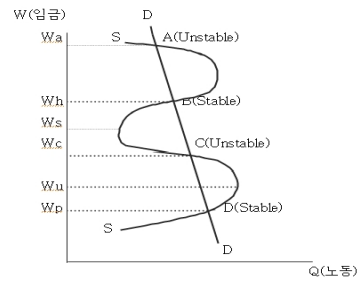


Fig. 3. modified labor supply curve and general labor demand curve

노동시장 역동성(역학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동의하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클 때 실질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가정해보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클 때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시장의 임금이 W_a 수준보다 높을 때 임금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실질임금 W_a 바로 아래 수준이라면 실질임금은 그 체제가 임금수준 W_h 에서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때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A점은 불안정한 균형이다.

만약 임금이 W_a 바로 아래 수준이라면 새로운 균형은 B점에서 달성될 것이다. W_h 와 W_c 사이의 임금수준에서 임금은 B점의 균형과 일치할 때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B점은 국부적으로 안정된 균형임에는 틀림없다. 전형적인 노동수요곡선을 고려한다면 W_s 와 W_a 사이의 범위는 자동 조절되는 노동시장과 일치한다[20, 22].

W_s 이하의 임금은 수정된 노동공급곡선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데 W_s 에서 W_u 에 걸친 영역에서 가계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노동시간을 공급하기 원할 것이다. W_c 이하의 임금수준에서 이러한 경향은 추가 시간을 일하려는 의지가 시장임금에 하향 압력이 나타날 때 자동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추가적 노동노력의 축진을 계속해서 감소시킨다. 사실상 하락하는 임금은 추가적인 노동노력을 야기하고 다음으로 더 많은 임금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존재하게 된다. 임금이 두 번째 안정적인 균형점인 W_p 수준으로 하락할 때 까지 노동공급량은 계속해서 수요량을 초과한다 [20, 22].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임금은 이미 낮은 임금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노동을 하는 가난한 가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훨씬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발생한다.

시장 임금이 Wu수준으로 하락하면 생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지속될 수 없다. Wu수준 이하의 임금에서는 가계는 최저생활수준(subsistence standard of living)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수준과 일치하는 D점은 또 하나의 부분적인 안정적 균형점이다. 그 점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걸린 노동시장을 설명할 수 있고, D점에서의 균형은 또한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의 경제학자들이 “착취노동(sweated labor)”으로 언급한 것과도 일치한다[16, 20]. 두 균형점에서 D점의 균형점은 상위의 효율성 가지고 B점의 균형점은 복지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D점의 균형점은 특이하게도 노동한계생산의 균형이 더 오래 걸리지 않는데 낮은 임금에서 D점의 균형은 완전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20, 22].

이러한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Wa 위의 임금에서는 불안정한 시장으로 노동수요량이 노동공급량을 초과하는 것이 지속된다. 이후 노동공급량은 임금이 올라감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는 재벌 CEO들의 경우와 일치한다. 이들의 소득세는 시장에서 이용되어지는 노동의 양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Wc 위에서의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호황을 강화하거나 노동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원인이 되었다. 최저임금은 고용수준이 쇠퇴하는 것과 일치하는데 반해 무의식적인 실업에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의 역동성에 대한 많은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4-6, 17, 24]. 만약 최저 임금이 Wc라면, 노동수요량은 노동공급량보다 더 커지게 되고 시장은 B점의 균형이 달성될 때 까지 임금을 보장 받게 된다. 셋째, 전통적인 실증주의자들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Prasch는 몇 십년에 걸쳐 미국의 다중 균형을 확인하였고 분할된 노동시장과 최저임금법의 특성에 대해 실정에 맞는 공급곡선을 주장하였다. 또한 저임금노동시장의 역동성의 이해는 최저 임금법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에서 경제적 정당성을 가지고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국내 노동시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23, 24]

3. 실증적 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을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3.1 대상자 분포

3.1.1 성별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남성은 평균 6,200명, 여성은 평균 6,052명 정도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근로자만을 분류한 성별분포는 남성 평균 3,717명, 여성 평균 2,476명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3.1.2 고용형태별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고용형태별로 비교해보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누어 살펴해보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692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981명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약 3배 더 많았다. 동일한 비율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각 차수별 추이를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

3.1.3 임금수준별

임금수준은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 근무시간에 대한 고소득, 중간소득, 하위소득별 노동공급곡선을 알아보려 했다. 거의 대부분이 월 근무시간 400시간 이하, 월 임금 5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며 월 근무시간이 400시간 이하에 월 임금 폭은 대체적으로 넓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었다.

3.2 국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시장 추이

3.2.1 고용형태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에서만 어느 정도 후방 굴절형 노동공급의 형태를 보이며 비정규직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간당 임금형태와 여가에 대한 활용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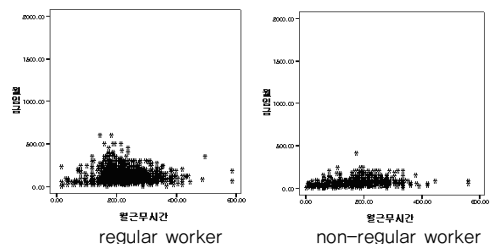


Fig. 4.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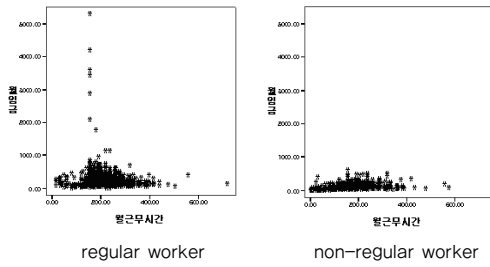


Fig. 5. 2007

3.2.3 임금수준별

임금수준별로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의 형태를 보이며, 특히 월 임금 100만원 이상부터 굴절(bending)이 나타나고 월 임금 250만원 이상부터는 또 다른 굴절(bending)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월 임금 500만원 이상에서는 2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차수별로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점차 좌상향하는 굴절(bending)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공급곡선의 또 다른 변동을 예상할 수 있다.

3.2.4 차수별

각 차수별(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까지의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반적인 후방굴절형 노동공급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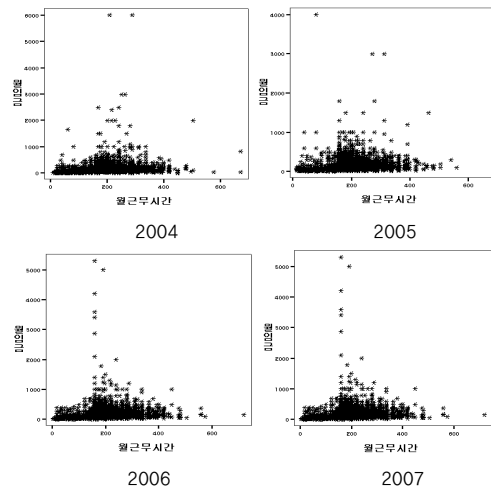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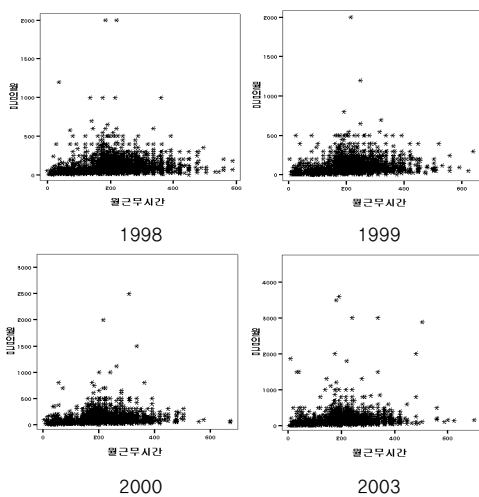


Fig. 6. from 1998 to 2007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3.3 국내 노동시장의 균형

국내 노동시장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Fig. 7과 같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도 임의의 노동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기본 가정에 조금은 맞게 나타났다. 어떠한 임의의 선이든 간에 추이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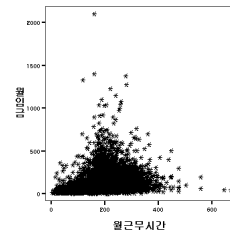


Fig. 7. equilibrium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4. 결론

최근 국내시장에서의 임금의 변화와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Robert E. Prasch가 주장한 수정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의 모형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여가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과연 국내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까지의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 역동적인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

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보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제안에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측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나타났으나 수정된 2개의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금 수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월 임금 100만원 이상에서부터 굴절(bending)이 나타나며 월 임금 250만원 이상부터는 또 다른 굴절(bending)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 후 국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현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압력, 고노동 전문직 기회현상, 복지(well-being)에 대한 여가의 또 다른 가치 인식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변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의 임금정체나 하락과 생활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연장으로 노동시장은 수요량보다 공급량 초과 현상이 나타나 이후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을 하는 가난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훨씬 더 긴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임금이 더욱 하락하면 생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지속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인은 최저생활수준(subsistence standard of living)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공급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들에게 후생복지, 즉 공적이전을 언제 실현해야하는가의 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시장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국내의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생활수준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보다 훨씬 아래 책정되어 있어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더 줄이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시장 복지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활유지를 위해 초과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의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여기며 다음의 연구에 부족한 면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유배, 2006, 『노동경제학』, 박영사.
- [2] 이준구, 2008, 『미시경제학』, 법문사.
- [3] Bluestone, Barry, and Stephen Rose. "The Unmeasured Labor Force: The Growth in Work Hours." Public Policy Brief no. 39, Annandale-on-Hudson, N.Y.: The Jerome Levy Institute, 1998.]
- [4] Brosnan, Peter, and Frank Wilkinson. "A National Statutory Minimum Wage and Economic Efficiency." Contributions to Political Economy 7(1998): 1-48.
- [5] Card, David, and Alan B. Kruger.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6] Cater, Thomas J. "Policy in a Two-Sector Efficiency Wage Model: Substituting Good Jobs for Bad."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20, no. 3 (Spring 1998): 445-461.
- [7] Commons, John, and John Andrews. Principles of Labor Legisla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6.
- [8] Dessing, Maryke. "Implications for Minimum Wage Policies of an S-Shaped Labor Supply Curve." Manuscript in possession of author,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eva, 1999.
- [9] Gordon, David M. Fat and Mean: The Corporate Squeeze of Working Americans and Myth of Managerial "Downsizing." New York: Free Press, 1996.
- [10] Katz, Michael L., and Harvey Rosen. Microeconomics. Boston: Irwin, 1991.
- [11] Kaufman, Bruce E.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s. 4th. ed. New York: Dryden, 1994.
- [12] Lester, Richard A. Economics of Labor. New York: Macmillan, 1941.
- [13] Levine, Robert. A Geography of Time. New York: Basic Books, 1997.
- [14] Mincer, Jacob.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Measurement in Economics: Studies in Mathematical Economics and Econometrics in Memory of Yehuda Grunfeld. edited by Carl Christ, Milton Friedman, Leo Goodman, Zvi Griliches, Arnold Harberger, Nissan Liviatan, Jacob Mincer, Yair Mundlak, Marc Nerlove, Don Patinkin, Laster Telser and Henri Thei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 [15]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John Schmitt.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1998-199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16] Power, Marilyn. "Parasitic-Industries Analysis and Arguments for a Living Wage for Women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Feminist Economics* 5, no. 1(March 1999): 61-78.

[17] Prasch, Robert E. "In Defense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Economic Issues* 30, no. 2(June 1996): 391-397.

[18] Prasch, Robert E. "The Overburdened Consumer: The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Service Sector."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Vassar College, 1997.

[19] Prasch, Robert E. "Complexity and Economic Method: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Complexity and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dited by David Colander. New York: Routledge, 1998a.

[20] Prasch, Robert E. "American Economists and Minimum Wage Legislation During the Progressive Era, 1912-1923."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20, no. 2(June 1998b): 161-175.

[21] Prasch, Robert E. "Review of *The Winner-Take-All Society*, by Robert H. Frank and Philip J. Cook." *Eastern Economic Journal* 24, no. 2(Spring 1998c): 244-246.

[22] Prasch, Robert E. "American Economists in the Progressive Era on the Minimum Wa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3, no. 2(Spring 1999): 221-230.

[23] Prasch, Robert E. "John Bates Clark's Defense of Mandatory Arbitration and Minimum Wage Legisl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22, no. 2(June 2000): 251-263.

[24] Prasch, Robert E., and Falguni A. Sheth. "The Economics and Ethics of Minimum Wage Legislation." *Review of Social Economy* 57(Winter 1999): 466-487.

[25] Schor, Juliet B.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1992.

[26] Taylor, John B. *Economics*. 2d.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1998.

저 자 소 개

장 유 미(Yu-Mi Jang)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박사)
- 2011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 2013년 ~ 현재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08년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장과 분배, 노동과 고용, u-Health & u-Wellness